금기·성역 넘던 소녀들, 내면의 두려움 비우다

르세라핌 'BOOMPALA'
K-팝으로 반야심경 담아

1집 〈UNFORGIVEN〉이
'금기 넘겠다' 선언이라면
2집에선 스스로와 마주해

"내 안에 남긴 두려움조차
실체 없음을 알았다" 통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르세라핌 신곡 'BOOMPALA' 퍼포먼스 필름. 사진=르세라핌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You can't hold on to the clouds in the air. (허공의 구름은 붙잡을 수 없어.)"

"Everything's empty so everything's clear. (모든 것이 공(空)하니 모든 것이 명징하다.)"

불교 경전 구절이나 어느 선지식의 법문 한 자락을 영역(英譯)한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이는 한국 대표 4세대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BOOMPALA(붐팔라)'의 가사다. 곡 가사가 전부 영문이라서 한국인들에게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무상(無常), 연기(緣起), 공(空) 등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들을 담아냈다. 실제 멤버 허윤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곡의 영감을 〈반야심경〉에서 받았다고 했다.

"〈반야심경〉의 핵심이 공(空)과 무(無)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굉장히 와닿았다."

'BOOMPALA'의 메시지는 르세라핌이 데뷔 이후 구축해온 서사와 맞물려 있다. 르세라핌은 정규 1집 〈UNFORGIVEN〉에서 '두려움 없이 금기와 성역을 넘겠다'는 선언을 내세웠다. 그룹명인 '르세라핌(LE SSERAFIM)' 역시 'I'M FEARLESS(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문장을 애너그램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1집에서 그들이 대립하는 주체는 외부 세계였다. 여성 아이돌을 둘러싼 시선, 여성에게 부여된 금기, 사회가 허락한 선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규범이 그들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특히 1집 수록곡 'UNFORGIVEN'과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로 이어지는 흐름은 상징적이었다.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프시케는 보지 말라는 것을 보았으며, 푸른 수염의 아내는 열지 말라는 문을 열었다. 모두 금기를 어긴 여성들이다. 르세라핌은 이 이름들을 소환함으로써 금기를 어긴 여성을 죄인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뒤집었다.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가 '용서 따위'를 구해야 하는 행위가 아님을 노래와 압도적 퍼포먼스를 통해 전했다. 이는 금기를 넘는 행위는 추락이 아니라 자기 해방의 출발이라는 선언이었다.

정규 2집의 'BOOMPALA'에 이르면 서사의 방향은 외부에서 내부로 치환된다. 이제 그들이 마주하는 대상은 외부의 금기가 아닌 내면 깊숙이 들어온 두려움, 불안, 집착 등이다. 외부의 시선과 규범을 향해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외치던 목소리는 이제 "그 두려움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지점에서 〈반야심경〉의 사유가 들어온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空)'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다. 모든 존재와 감정, 생각과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분명 느껴지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실체로 붙잡는 순간 번뇌가 된다. 불안도, 수치심도,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조건의 산물일 뿐이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은 "르세라핌의 'BOOMPALA'는 경쟁 사회 속 지친 젊은이들에게 '너가 쫓고 있는 것들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공과 반야의 사유를 전하고 있다. 자신의 일상과 이어진 인연들이 나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바라볼 수 있음을 K팝이라는 문법 안에서 펼친다"고 설명했다.

'BOOMPALA'가 흥미로운 이유는 공의 사유를 대중음악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곡은 〈반야심경〉을 강의하지 않는다. 불교 교리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몸을 흔들게 하는 리듬과 주문처럼 반복되는 후렴 속에 "붙잡지 말라", "흘려보내라", "두려움은 허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심는다.

여기서 르세라핌의 서사는 한 단계 깊어진다. 두려움 없음은 단순한 용감함이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참된 무외(無畏, 두려움이 없음)는 두려움의 뿌리를 보는 데서 온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나', 나를 평가하는 '타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이미지'가 모두 조건 따라 생겨난 것임을 볼 때, 두려움은 절대성을 잃는다.

'붐팔라'라는 가사도 흥미롭다. 그것은 명확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기보다, 리듬 속에서 반복되는 주문에 가깝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지혜의 완성으로 건너가는 소리라면, '붐팔라'는 오늘의 대중문화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는 리듬형 진언처럼 기능한다.

법장 스님은 "곡의 샘플링이 '마칼레나'인데, 이것이 노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한 것 같다. 사실 '마칼레나'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며 세계인이 기억하고 흥겹게 춤출 수 있는 노래가 됐다"면서 "누구나 흥겹고 신명날 수 있는 힘을 '붐팔라'라는 가사에 투영했다. '붐팔라'는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이 전하는 진언"이라고 평가했다.

'BOOMPALA'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문법을 마주한다. 불교의 오래된 사유와 가르침이 사찰의 법당 안에 머물지 않고, 무대와 뮤직비디오, 챌린지와 팬덤의 언어 속에서도 새롭게 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르세라핌은 〈UNFORGIVEN〉에서 금기를 깨는 두려움이 없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BOOMPALA'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가 붙잡을 실체 없는 허상임을 노래한다. 금기를 넘은 소녀들은 이제 마음을 들여다본다. 바깥의 성역을 허문 이들은 안의 집착마저 비워내고 있다.

"불교 굿즈, 이젠 내가 만든다"

조계종 문화상품 공모 진행
10월 23일까지 이메일 접수
상품 부문·디자인 부문 나눠
대상 1명 600만원 상금 수여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불교문화 콘텐츠를 현대적 문화상품으로 재해석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확인된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실제 상품 개발과 유통으로 연결해, 전통불교문화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및 사찰 콘텐츠 기반 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이 보유한 문화유산과 상징, 수행문화, 역사, 공간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해 전통불교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찰 현장에서 판매 가능하고, 국제불교박람회와 지역 사찰 유통망까지 확장 가능한 실용적 문화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공모 주제는 조계종 또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유산과 고유 특징을 활용한 문화상품이다. 응모자는 특정 사찰의 불화, 목조건물, 석조물, 불상, 범종, 단청, 탑, 전통문양, 서체, 수행문화, 생태·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생활용품과 공예품, 굿즈, 디지털 상품 등 시제품 형태의 '상품 부문'과 제작 가능한 설계도 및 시각화 결과물을 제출하는 '디자인 부문'으로 나뉜다.

응모 자격은 개인과 학생, 기업, 디자이너, 공예가, 브랜드, 사찰 및 종단기관, 불교문화 관련 단체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불교박람회 참가업체도 지역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반드시 본인이 창작했거나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결과물이어야 하며, 실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 활용한 사찰 문화자산과 상품 제작 방식, 권장 소비자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bexpo@daum.net)로만 진행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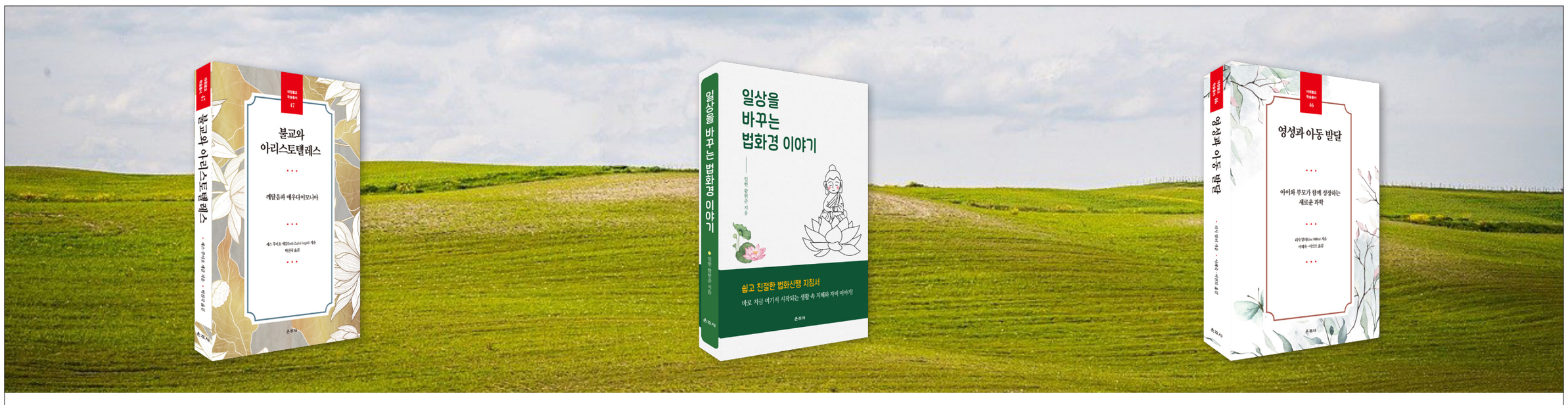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최종 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불교문화와 디자인, 브랜딩, 유통·MD, 공예·상품 개발, 저작권·법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요 심사 기준은 조계종 및 사찰 연계성, 창의성, 디자인 완성도, 상품성,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이다. 특히 특정 사찰의 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입선 다수로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600만원, 최우수상 각 35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에는 별도의 저작권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금액은 최종 계약 시 확정된다.

수상작은 2027서울국제불교박람회 내 수상작 전시존에서 소개되며, 박람회 디렉토리북을 통해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 콘텐츠가 박람회 현장에서의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사찰과 일상 속에서 향유되는 문화상품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